특별인터뷰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

# “풍경소리는 회향해도 찬불가는 남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좀 다녀봤다는 사람이면 들어봤을 노래. 20년 전 신입기자 시절, 첫 연등회 취재에서 접한 뒤 한동안 입에서 흥얼거리게 만들었던 ‘마약송’. 바로 찬불가 ‘오늘은 좋은날’이다.

‘오늘은 좋은날/ 부처님오신날/ 온갖 꽃 피어나는/ 만 생명 축복의 날….’ 이제는 고전이 된 대중 찬불가 ‘오늘은 좋은날’을 작곡한 이가 바로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다.

1995년 창작 찬불동요·찬불가 보급을 위해 ‘좋은벗 풍경소리(이하 풍경소리)’를 창립한 이래 이 대표는 쉬지 않고 음반을 발매하며 불음포교에 매진했다. 그런 그가 6월 25일 자신의 SNS에 “풍경소리 60집으로 회향합니다”라는 글로 풍경소리가 진행했던 불음포교 사업의 회향을 대중에 알렸다. 소식은 삽시간으로 퍼졌고, 전국의 스님과 불자들의 격려와 문의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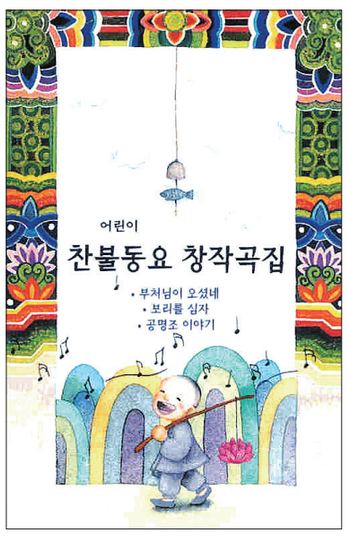
7월 4일 만난 이 대표는 ‘풍경소리 사업의 회향’이 “하루 이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5년 전부터 마음먹고 준비해 온 일”이라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음반과 사무실 정리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저간의 상황을 전했다.

“처음은 카세트테이프로 시작했죠. 이게 CD로 변화했고, 이젠 USB와 음원 스트리밍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CD가 음원기록장치로 좋습니다. 그래서 풍경소리는 고집스럽게 59집까지 CD와 USB로 병행해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반들의 재고들이 상당했는데 지난해부터 풍경소리 음반들을 연등축제 기간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인연 있던 스님과 단체에도 보내고요. 지난 5월 28일에는 전법회관 사무실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마지막 음반을 발매한 것이죠.”

30년 동안 자신이 가진 예인(藝人)으로서의 역량을 투여한 불음포교의 회향에 아쉬움은 없을까. 이 대표는 “이제는 회향할 때”라고 덤덤히 말했다.

“부처님 법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니 그래도 무언가 종결어미는 만들어야 싶었습니다. 풍경소리 30년, 60집이라면 도반들과 스님들도 박수는 쳐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마지막 음반 녹음할 때 함께 했던 동생들이 ‘선생님 진짜 그만인가요’ 할 때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죠.”

마지막까지 함께한 동생들에게 이 대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한 일이 아니지 않냐. 불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노래로 인연돼 30년을 활동했는데 지금 이정도면 회향하는 게 맞다”고 달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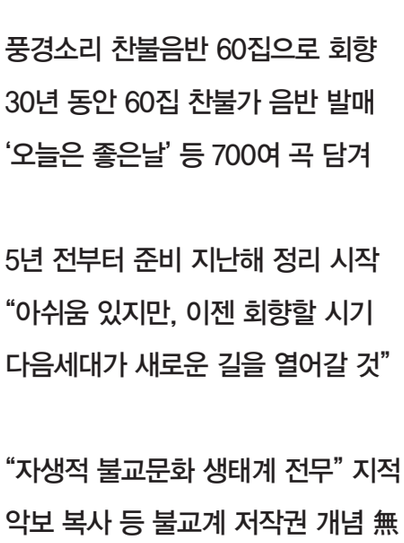
좋은벗 풍경소리 1집 음반 표지.

**풍경소리 찬불음반 60집으로 회향**
**30년 동안 60집 찬불가 음반 발매**
**‘오늘은 좋은날’ 등 700여 곡 담겨**

**5년 전부터 준비 지난해 정리 시작**
**“아쉬움 있지만, 이젠 회향할 시기**
**다음세대가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

**“자생적 불교문화 생태계 전무” 지적**
**악보 복사 등 불교계 저작권 개념 無**
**현재 산사음악회 정체성도 모호해져**

**인생 3막, 다시 ‘음악인’ 본령으로**
**9월 ‘덕신 스님 헌정 음악회’ 계획**
**“좋은 노래 만들고 부르고 싶어요”**



좋은벗 풍경소리 60집 음반 표지.


이종만 대표는… 1959년 서울 출생. 서울 보성고 재학시절 브라스밴드에서 음악의 기초를 쌓았다. 대학 진학 대신 생업을 선택해 레스토랑에서 통기타 가수로 공연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포크노래모임 ‘참새를 태운 잠수함’에서 활동하다가 해군 군악대에 입대했다. 제대 후 1988년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을 타이틀곡으로 한 1집 앨범 ‘이종만’으로 데뷔하고 4집까지 발표하며 대중가수로 입지를 다졌다. 이후 조계사에서 만난 황학현 씨에게 찬불가 작곡을 요청받은 게 인연이 돼 불교음악인으로 30여 년을 살았다. 좋은벗 풍경소리를 이끌며 30년 동안 찬불동요 · 대중 찬불가 음반을 60집 발간했다. 앨범 수록곡만 700여 곡에 달한다.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지휘하고 있는 이종만 대표 모습.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창 지휘를 준비 중인 이종만 대표.

### 종로와 불교, 음악이 좋았다

풍경소리의 시작과 끝에는 모두 이 대표가 있다. 사실 이 대표는 젊은 시절 여의도 연예계에게서 꽤 알려진 통기타 가수, 요즘 말로는 ‘싱어송라이터’였다. 그가 음악을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서울 혜화동 보성고 재학 시절이었다. 보성고는 브라스밴드로도 유명했는데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이 대표는 브라스밴드에 가입하고 음악적 소양을 쌓았다. 악기도 제법 잘 다뤘고 재능도 있었다. 하지만 가계가 기울며 대학 진학이 아닌 레스토랑 통기타 가수로 취업해 생계를 이었다.

대학 대신 선택한 ‘가수’의 길에서 만난 선연(善緣)들로 인해 ‘참새를 태운 잠수함’에서 활동했고, 이 시기는 대중음악 가수로서 그의 자양분이 됐다. 해군 군악대를 제대 후에는 이 대표의 재능을 알아본 음반회사 대표의 눈에 들어 1986년 1집 음반 ‘이종만’을 냈다.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장돌뱅이’ 등이 수록된 앨범은 약 13만 장 가량 판매되며 인기를 얻었다. 이후에도 4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대중음악 가수로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반골 기질이 강했던 그에게 프로듀서와 음반회사 대표 눈에 들기 위해 머리를 숙여야 했던 당시 여의도 방송·연예계 정서는 맞지 않았다. 어디 마음 둘 곳 없이 휑한 벌판 같던 이 대표에게 불교와의 인연이 찾아왔다.

“10~20대 삶에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끓어오르는 울화 같은 게 있었어요. 대중음악 가수로서 입지는 다졌지만 삶은 거칠고 팍팍했어요. 어느 날 조계사 어린이합창단을 가르치던 친구(故유익상)의 소개로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황학현 씨를 만났고, 찬불가 작곡을 부탁해 한 곡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종로가 마음에 들어온 것이.”

그러던 어느 날 학생들이 카세트테이프에 노래를 녹음하는 모습을 봤다. “뭐하는 것이니”라고 묻자 학생들은 “여름불교학교에서 찬불가와 율동을 가르치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리니 녹음해 가져가서 연습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즉석에서 악보를 그려주고 반주 음악을 연주·녹음해 전달해 줬다. 학생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이를 본 이 대표는 황학현, 최미선 씨 등과 의기투합해 여름·겨울 어린이불교학교에서 사용할 찬불 동요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풍경소리’의 시작이다.

이해타산적인 여의도보다 그래도 사람 냄새나는 종로가 좋았던 이 대표는 점차 여의도보다 종로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자신을 괴롭혔던 불같은 울분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사그러졌다. 그렇게 그는 불교음악인이 되어갔다.

### 단일음반 ‘60집’이란 금자탑

1995년 시작된 풍경소리는 매년 2차례 창착 어린이 찬불가(찬불동요) 음반을 발매했다. 그렇게 30년 동안 쉬지 않고 60집을 선보인 것이다. 음반을 통해 세상에 소개된 찬불동요, 찬불가만 700여 곡에 이른다. 단일 음반 중에는 한국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부침도 적지 않았다. 재정난으로 인해 10집까지만 발매하려 한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스님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5년 정도 운영했을 때 재정난이 심해서 10집까지만 하고 접으려고 했습니다. 종로에서 ‘마음공부’한 것을 갖고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 음악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이게 소문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속리산유스호스텔에서 어린이 찬불율동 강습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왔는데 운문사 학인·대중 스님들의 팩스가 왔더군요. 3~4장에 달하는 팩스에 스님들은 ‘그만두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빼곡이 채우셨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편환 500만원을 보내셨어요. 팩스를 받아보는데 참아왔던 눈물이 올라오더군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이 대표는 바로 당시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소임을 보고 있던 덕신 스님(대구 대륜사 주지)을 찾아갔다. “풍경소리 사업을 접으려고 했는데 운문사 스님들이 500만원을 보내주셨다. 저는 이 큰 돈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하자 덕신 스님은 함께 운문사로 갈 것을 제안해 약속을 잡고 운문사에서 대중 스님들을 만났다. 이후 대중방에서 운문사 대중에게 삼배를 올린 이 대표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들른 식당에서 덕신 스님은 지현 스님(안동 임강사 주지)에게 연락해 “이종만 선생이 답답한 사람이라 이리 두면 안 될 것 같다. 스님께서 총재를 맡고 제가 회장을 맡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풍경소리는 스님들과 유대로 더욱 단단해졌고, 이후 대중 찬불가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됐다.

### “‘불교문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풍경소리’의 회향은 앞으로 창작 찬불가를 제작·보급할 사람과 단체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어느 때보다 ‘힙한 불교’임을 자부하는 시기, 정작 자생적 불교문화 콘텐츠가 미비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은 ‘불교문화 생태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악보집을 발매해도 모두 복사해 공유하고 음반도 구하지 않고 돌려 듣는, 저작권이 형성·보장되지 않는 현 구조는 전문 인력이 불교계에서 활동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음악계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5년 전부터는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음반이 거의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악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악보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복사돼 전국에 배포됐어요. 저작권이 강화된 시대라고 하지만, 불교 안에는 잘 이뤄지지 않아요. 요즘은 음원 스트리밍이 대세인데 조계종에서 음원 관리 대행사나 미디어 관리 기획사 혹은 부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불교 안에서 신심 있게 일할 수 있는 창작자들이 생깁니다.”

자생적 생태계가 없는 것은 공연 문화에도 나타난다. 언제부턴가 산사음악회는 찬불가, 대중가요, 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가 담긴 공연의 장에서 트로트 중심의 무대가 되어 버렸다. 오가는 길손과 지역민들이 자리했던 객석은 트로트 가수 팬클럽들이 차지했다. 지현 스님과 함께 산사음악회 문화를 이끌었던 이 대표는 이 같은 세태에 대해 “본질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청량사 산사음악회에는 (지금은 유명해진) 장사익, 한영애, 안치환 같은 당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공연하고 이를 지역민과 등산객, 참배객들이 즐겼죠. 지현 스님도 공연기획하는 팀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최근에 산사음악회를 가면 트로트 가수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다양성보다는 ‘누가 왔다던데’가 중요해진 것이죠. 이는 산사음악회의 본질과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늘은 좋은날’ 제작 비화를 이야기해줬다. 1996년 풍경소리 4집 제작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이 대표에게 연등축제에서 사용될 음악 제작을 의뢰했다. 월주 스님은 “연등축제에서 연등을 들고 걸어오는데 좀 신나고 활기찬 대중적인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제작된 것이 ‘오늘은 좋은날’이다.

“월주 스님께 인사드리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생각이 젊으셨어요. 노랫말이 무겁고 어려우면 누가 듣겠냐는 것이죠. 젊은 감각으로 노래를 제작해 달라면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날’이 세상에 나왔죠. 월주 스님도 지현 스님도 비슷하셨던 것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기조가 있으셨어요. 믿고 맡기신 것이죠.”

### 그래도 이어진다

풍경소리를 회향했지만, 이 대표의 본령인 ‘음악’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좋은 음악을 만들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예인’의 삶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당장 오는 9월 13일에는 대구에서 ‘덕신 스님 헌정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찬불음반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문 스님, 반영규 선생 등과 같은 앞서간 불교음악인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기리는 헌정 음악회가 없더군요. 당장 풍경소리 30주년을 맞아 단체를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하셨던 덕신 스님에게 헌정하는 음악회를 열려고 합니다. 한창 준비 중인데 무대 인원이 너무 늘어나서 걱정입니다.(웃음)”

인터뷰 말미, “내일의 찬불가는 누가 만들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한 단락 지으면, 또 누군가가 불교음악에 새살을 돋울 겁니다. 불교음악의 내일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